

전주시, 촘촘한 주거안정망 구축 '온 힘'

김승수 시장, 사회주택 '창공'·'소우주' 찾아 입주 청년들과 간담회 갖고 입주 소감·애로사항 등 청취

감당하기 힘든 주거비 등으로 힘들어 하는 청년들에게 민간임대주택보다 저렴한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전주시가 입주 청년들과 소통을 하는 자리에서 촘촘한 주거안정망 구축을 약속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7일 서서학동과 효자동에 위치한 전주형 사회주택 '창공'과 '소우주'를 차례로 방문해 청년 입주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회주택 운영단체인 한국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협동조합 '합집' 관계자가 함께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김 시장은 청년들의 입주 계기와 소감, 사회주택 운영상의 애로점 등을 청취했다.

'창공'에 입주한 한 예술인은 "코로나19로 공연을 하지 못하는 어려운 시기에 전주에서 예술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줘 월세 부담을 덜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소우주'에 입주한 한 대학생은 "사회주택은 임대료가 저렴한 장점뿐만 아니라 건조기 등 편의용품과 커뮤니티 공간까지 있어 입주민을 위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면서 "중간 소음이나 흡연 등 입주민간 갈등이 발생하면 운영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해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점이 기



김승수 전주시장은 27일 서서학동과 효자동에 위치한 전주형 사회주택 '창공'과 '소우주'를 차례로 방문해 청년 입주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역에 남는다"고 말했다.

서학동예술마을에 있는 '창공'은 문화예술 공방이 집적화돼 있고, 한옥마을에 인접한 만큼 청년예술인과 대학생 등이 입주해있다. 시는 '창공' 인근에 주민과 예술인들의 소통공간인 '행복플러스센터'와 예술인 창작공간인 '창작레지던시플라자' 등을 조성해 예술인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주대 인근의 '소우주'는 기숙사 수용률이 낮아 월세의 부담을 느끼는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이곳에서는 다양한 꽃과 공동텃밭을 가꿀 수 있어 학업으로 지쳐있는 학생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전주형 사회주택은 전주시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면 사회적 경제주체가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주거약자에게 시세 8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20년까지 장기 임대된다.

시는 올해 전주대학교 정문 인근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오는 10월 이후 사회주택 13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1인 단독거주형과 3인 공동거주형으로 공급되는 이 사회주택은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용 커뮤니티 공간도 갖춰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팔복동 새뜰마을 계층융합형(10가구) ▲동원산동 청년 셰어하우스(5가구) ▲중화산동 여성안심 사회주택(15가구) ▲효자동 청년주택(17가구) ▲삼천동 계층융합형 주택(37가구) ▲서서학동 청년예술인 주택(18가구) 등 총 87가구에 사회주택을 공급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단순히 주택보급이 아닌 주거복지의 관점에서 주거약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민간공급 주택보다 저렴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고 있다"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청년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주거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모든 시민을 위한 촘촘한 주거안정망을 갖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공동체 정보 '한 눈에' 디지털 활동공간 운영

전주시, 커뮤니티 매핑 앱 7월부터

전주시가 공동체들을 위한 활동공간으로 온두레 완산·덕진 아울터를 조성한 데 이어 디지털 활동공간도 구축한다.

시는 오는 7월부터 전주 전역의 공동체 활동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매핑 앱인 '온두레 디지털 아울터(가칭)'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커뮤니티 매핑은 지역 구성원들이 사회문화나 지역의 이슈, 안전, 도시재생과 같은 주제에 대한 정보들을 지도상에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방식에서 탈피해 시민이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양방향 소통 방식으로 운영되는 게 특징이다.

이 같은 커뮤니티 매핑 방식이 적용되는 '온두레 디지털 아울터'는 지난 2015년부터 육성된 공동체 회원들이 공동체 관련 유·무형 자원을 직접 지도상에 구현하면, 시민들이 전주 곳곳

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를 확인하고 활동에 동참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온두레공동체에 대한 깊은 이해와 노하우를 가진 단체를 선정해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활용도를 높일 핵심 카테고리를 발굴해 '온두레 디지털 아울터'에 적용키로 했다.

시는 앱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현재 활동 중인 공동체 회원 4300여 명의 활동정보와 18개동 마을계획 추진단의 동별 마을조사 자료 등 초기 데이터를 대량으로 구축키로 했다. 또 카카오맵이나 네이버 등과 연계한 간편 가입과 네이버 지도 등과 연계한 간편한 장소정보 등록 등 사용자 중심의 환경도 제공키로 했다.

여기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조사 매핑 데이터를 운영하는 한편 온두레공동체 회원들의 이용을 독려해 '온두레 디지털 아울터'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윤상 기자

선미촌 팝업스토어 운영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성평등전주, 내달 10일 오픈

서노송예술촌으로 변신한 선미촌에서 버스킹공연을 보거나 퍼즐게임을 하는, 혹은 스테이크나 빵을 먹을 수 있는 다양한 팝업스토어(임시 상점)가 다음 달 문을 연다. 전주사회혁신센터 성평등전주(소장 조선희)는 다음 달 10일부터 '어쩌다 청년' 등 7개 단체와 함께 서노송예술촌 여행길(여성이 행복 한 길) 조성을 위한 리빙랩 사업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리모델링한 선미촌 내 빈 업소를 활용해 사진 촬영 스튜디오, 공예 원데이클래스, 홈베이킹 요리·카페, 업사이클링 가구 판매, 선미촌 굿즈 만들기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지난달 협약을 체결한 7개 단체가 오는 11월까지 사업을 이어간다.

7개 사업으로는 ▲전북여성예술인연대의 '팝업스토어, 버스킹공연, 예술전시' ▲문화발달의 '지역문화 콘텐츠 판매와 3D 퍼즐체험' ▲어쩌다 청년의 '청년공방 운영과 원데이클래스(드로잉, 원예)' ▲새뜰마을 공작소의 '한지 및 법진 공예체험·전시·판매' ▲온두레의 '동남아 결혼이민자 공유 홈베이킹 카페, 핫샌드위치와 쌀국수 판매' ▲노마드의 '업사이클링 퍼니처 전시 및 판매' ▲아

즐리 팝 공동체 '브런치카페 및 쿠김클래스' 등이 있다.

각 업소를 방문한 뒤 도장을 찍어 오면 굿즈를 제공하는 여행길 스탬프투어도 진행될 예정이다. 팝업스토어 운영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사업에 따라 야간과 주말에도 운영된다.

이와 함께 7개 단체들은 '지역사회가 더 평등하고 더 나은 사회' 회가를 희망하는 공동약속문을 통해 동등한 참여·차별의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평등·인권중심의 가치를 중심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선미촌 공간을 만들어 가기로 약속했다.

이와 관련 시는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을 여성 인권의 무대이자 문화와 예술이 꽃을 피우는 예술촌으로 조성하고,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같은 노력의 결실로 2000년대 초반 85곳에 달했던 성매매업소는 현재 4곳으로 줄었다.

전주시 사회연대지원단 관계자는 "여성 인권 침해 공간이었던 성매매 집결지가 시민주도의 선미촌리빙랩 사업을 통해 친시민적 공간으로 새롭게 재구성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남원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준수 사항 위반 청소년 소년원에 유치

법무부 남원준법지원센터(소장 정경진)는 지난 26일 보호관찰청소년 A군(15세)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월 25일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보호관찰 6개월, 특별 준수사항으로 야간의 출 제한명령 2개월, 학적을 유지하고 성실하게 학교수업에 참여할 것을 부과 받고 전주소년원에서 임시 퇴원해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A군은 야간의출 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주거지를 이탈해 비행우려가 있는 소년들과 여인숙에서 숙박을 지속하고, 학교 기물을 손괴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한편 정경진 소장은 "야간의출제한명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사회적협동조합 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출범

전주지역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지붕 아래 한데 뭉쳤다.

사회적협동조합 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추진위원장 오춘자)는 지난 26일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심재권 전주시회경제네트워크 상임대표, 송병주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이사장을 비롯한 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고,

이훈락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를 초대회장으로 선출했다.

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지난 2012년부터 사회적경제기업간 협력사업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나 개별적인 활동을 통합하고 안정적인 조직과 지속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7차례에 걸친 창립위원회 회의를 거쳐 비영리법인인 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이날 정

식단체 설립을 위한 정관을 승인하고 임원을 선출했으며, 올해 추진할 사업 계획과 예산도 승인했다.

한후 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운영·정책·교육컨설팅·사업 등 4개 분야 운영위원회를 두고, ▲사회적경제조직 네트워크 지원사업 ▲사회적경제조직 실태조사, 연구 및 컨설팅사업 ▲사회적경제 역량 강화 및 자변확대를 위한 교육사업 ▲사회적경제 조직간 정보공유 및 연대·협력사업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만 50~70세 신중년 일자리·사회활동 지원 협력

전주시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전북노인일자리센터

전주시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김중성)와 전북노인일자리센터(센터장 장우철)는 27일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신중년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도시재생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서서학동과 서노송동 일원의 만 50~70세 주민들의 사회 참여와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자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전주시사회적경제·도

시재생지원센터는 신중년 세대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해 마을관리 활동가로 양성하고, 전북노인일자리센터는 기존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과 연계해 이들을 노인 활동가로 채용키로 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지의 마을공동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신중년 세대의 소득인정액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